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련변인 연구

A Study on the middle-aged couples' caregiving burden and related variable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 경 신

박사과정 이 선 미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yeong-Shin, Kim

Doctoral course : Seon-Mi, Lee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middle-aged couples' caregiving burden,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to estim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and analyze the effects of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on caregiving burde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172 middle-aged couples living in Seoul and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cores of couples' caregiving burden were lower than medium. Especially, husbands' score were higher than wives' in a sense of guilt and husbands' caregiving burden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wives'.
2. Couples' caregiving burd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birth order of husband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was the most differential in family relationship variables. Social support and family value orientations were also significant variables.
3.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husbands' caregiving burden was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on wives'. And lif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were very important variables. So family relationship must be enhanced and social support system's reinforcements are necessary.

I. 서 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가족을, 나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은 자식으로서의 의무이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구조의 외형은 부자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

화되었고,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도입으로 부부관계, 자녀관계는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는 반면 노부모와의 관계 특히, 노부모부양의 어려움을 잠재적으로 지니게 되었다(김송애, 1991).

가치관과 생활양상이 변화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자녀에게 의존하여 부양받고 있고, 이런 과정속에서 노부모 부양은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1960년에 3.3%였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0년이 지난 1990년에는 4.7%, 1996년에는 6.1%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통계청, 1996), 노부모 부양의 기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양 기간이 장기화되면, 사회보장이나 복지차원의 부양정책이 따로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 세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직업활동에서 오는 다중 역할로 인하여 부양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김명자, 안선영, 한정화, 1996).

특히, 중년기는 시대적으로 효의식을 비롯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옴과 동시에 핵가족화 등 근대적 가치관의 영향도 크게 받음으로써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욕구를 다같이 충족시켜야 하는 과중한 역할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최근들어 부모부양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의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 동거 노인은 53.8%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리라 추정되고 있어, 동거 부양시의 부담감 뿐만 아니라 비동거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부양부담감 역시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양부담감과 관련되는 요인으로는 부양자의 성별, 가족내 지위, 교육수준, 경제상태, 부양의식, 거주형태 및 노부모의 건강, 경제적 능력, 배우자 유무 등과 같은 부양자녀와 노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증시되고 있으며 이 밖에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는 물론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화용, 1996).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된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

련된 연구들은 관련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일부 가족관계 변인을 다룬 연구(김송애, 1991; 민무숙, 1995; 신일진·김태현, 1991; 이신숙, 1994; 이신숙·서병숙, 1994b; 조경자·한동희·조은희, 199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가치관을 함께 본 연구(김송애, 1993; 한은주, 1993), 사회적지지 변인을 이용한 연구(송현애·이정덕, 1995; 이윤정, 1995; Stroller & Pugliesi, 1989)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도 가족내에서 부양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며느리나 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족은 정서 공동체로서 한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가족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부양의 책임자이면서 실제로는 아내에게 그 실질적 수행을 전가시키고 있는 남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성인자녀가 느끼는 개인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실제로 제공되는 도움의 양이나 의존성보다는 노부모 관계에 대한 지각의 정도에 더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Cicirelli, 1983), 부양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좀더 포괄적으로 부모 자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이 포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시기인 중년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과 부부간 상관을 파악하고,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부양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또한,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부부간 관련성은 어떠한가?
- 2)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은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3)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미치는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의 노부모부양부담감

인간은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만 성인이 되어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역으로 부모를 보살피는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특히, 유교를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여겨온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가족을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강했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이며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해왔다. 병약하고 손상된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부양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었고(Brody, 1985), 가족원 또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시하였다(서병숙, 1988; 장선주, 1990).

그러나, 시대가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부계혈연중심적 가치관은 약화되고,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해지게 되었으며,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가족구조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이나 태도가 약화되고 있으며(조병은·신화용, 199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요구는 종종 성인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험하게 한다(Stroller & Pugliesi, 1989).

특히, 중년기는 전통적 사고와 현대적 사고의 가운데에서 부모 부양과 젊은 자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점차 부모보다는 자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보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은 부담감이 되고 있다.

1994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87%의 응답자가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최근 공보처의 조사(1996)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2.4%가 아들이나 딸 누구나 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남부양 선호의식은 어느정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부모를 부양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보다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한은주·최배영(1997)에 따르면, 중년기의 부모부양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의식적인 면에서는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이 팽배해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을 때는 부양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노부모 부양에 따르는 부담감은 걱정, 좌절감, 긴장, 유감, 압도당하는 느낌, 감정적 소모, 초조, 무력감(Cicirelli, 1983), 친구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Lawton et al., 1991), 좌절, 죄의식, 짜증, 사랑하는 부모의 쇠퇴를 지켜보는데서 오는 근심과 같은 감정적 대가(Abel, 1986; Archold, 1983; Cantor, 1983; Mammen & Sanders, 1992; Quinn, 1983; Robinson, 1983)와 시간 부족, 사생활 제한, 육체적 부담과 같은 신체적 대가(Brody, 1990; Horowitz, 1985; Scharlach, 1994),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대가(Motenko, 1989; Thompson et al., 1993; Walker, 1992) 등이 있어, 부담감은 다차원적임을 시사하고 있다(김명자·안선영·한정화, 1996).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부양부담감의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를 연구한 한은주(1993)와 민무숙(1995)은 부양부담도를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적 부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윤정(1995), Lawton et al.(1989)은 부양부담감을 객관적 부담감과 주관적 부담감으로 나누어 개인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기회 제한, 건강의 악화 등을 객관적 부담감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 감정 등의 측면을 주관적 부담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현애·이정덕(1995)은 사생활제한의 부담, 정신적·육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좌절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김명자·안선영·한정화

(1996)는 사생활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죄책감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자·안선영·한정화(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부모 부양부담감을 위의 여섯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은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4a; 이윤정, 1995).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가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의 어려움을 특별히 부담감으로 느끼지 않거나 또는,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실제적인 부양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부양부담감을 비교한 김명자·안선영·한정화(1996)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남편의 부양부담감이 신세대 남편의 부양부담감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년기 부인은 육체적 부담, 사생활 부족의 영역에서 신세대 부인보다 높은 부양부담감을 나타냈다. 송현애·이정덕(1995)의 연구에서도 젊은 연령의 여성들보다 중년여성들이 시부모 부양에 대해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부모의 연령이 많아지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시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거나 중년기의 위기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윤성혜(1990)는 중년기의 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해서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2.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부담감 관련 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반적으로 부양부담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부양과정에서 중년기 며느리는 남편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안선영·한정화, 1996; 옥선화 등, 1994; Miller et al., 1991). 이런 결과는 부양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들이기 보다는 며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양자의 연령과 부양부담감간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부양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4b; Lang & Brody, 1983), 이는 부양자의 연령 증가는 피부양자의 연령증가와 관련되어 시부모의 경제적, 육체적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거나, 중년기 여성이 자신의 신체적인 노화와 심적 갈등속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큰 부담을 지각하기 때문일 것이다(송현애·이정덕, 1995). 한편, Sutor와 Pillemer(1988)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부양부담도가 적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부담감은 또한 가족내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아들을 노후 부양의 1차적 책임자로 여겨왔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중년기의 며느리는 딸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고, 특히 딸며느리가 둘째이하 며느리보다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3; 이윤정, 1995; 한은주, 1993).

노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련해 많은 연구들은 노모와 동거하고 있는 며느리가 노모와 별거하고 있는 며느리보다 더 높은 부양부담감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송애, 1990; 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 1994; 이신숙·서병숙, 1994b; 한은주, 1993; Dwyer et al., 1994). 노부모와 동거하는 중년기 자녀는 별거하는 자녀에 비해 물리적 공간과 개인적인 자유를 잃게 되기 쉽고, 프라이버시, 자율성, 수면의 부족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Stroller & Pugliesi, 1989) 부양으로 인한 부담도를 더 높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신숙·서병숙(1993)의 연구에서는 동·별거에 관계없이 노모의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에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성미애(1991)도 동거여부는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Soldo와 Myllyluoma(1983)는 노부모와의 동거가 세대간에 만족스러운 유대관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중년자녀의 취업여부와 부양부담감을 살펴본 연

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전업주부인 경우에 노부모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진경, 1990; 송현애·이정덕, 1995; 한은주, 1993). 그러나, 이윤정(1994)의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김송애(1991), Scharlach(1994)의 연구에서는 취업을 한 부양자가 비취업 부양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양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부모의 나쁜 건강상태는 중년기 자녀에게 부양부담감을 발생시키는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김송애, 1991; 김윤정, 1993; 민무숙, 1995; 이신숙·서병숙, 1994b; 이영자·김태현, 1992; Cicirelli, 1980), 조경자·한동희·조은희(1996)의 연구에서도 노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성인자녀가 느끼는 갈등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부모의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부양부담감을 살펴보면, 이신숙·서병숙(1993)의 연구에서는 노모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을 때 부양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이윤정(199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객관적 부담감을 나타냈다.

노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약하면 성인자녀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최정혜, 1992), 성미애(1991), 이신숙·서병숙(1993), 이윤정(1995)의 연구에 따르면, 노모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에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2) 가족관계 변인

노부모와의 유대관계와 부양부담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나 심리적 유대관계가 낮은 경우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민무숙, 1995; 이신숙·서병숙, 1994a). 또한, 중년기 부양자가 노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지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을 덜 나타냈다(Stroller & Pugliesi, 1989).

세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으로는 세대차이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족(Marotz-Baden & Cowan, 1987, 신일진·김태현,

1991 재인용) 등이 있고, 부모의 기능적 의존이 클수록 자녀의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난다(조경자·한동희·조은희, 1996).

한편, 노부모와 부양자간의 원조유형도 부양부담도의 영향요인으로(민무숙, 1995), 어머니가 자녀에게 심리적 교류를 많이 할수록 자녀가 느끼는 부양부담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애·이정덕(1995)의 연구에서는 부양의 원조유형보다는 시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인지는 더 낮아져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부양자가 지각하는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3) 사회적지지 변인

부양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누군가 부양이나 관련된 일을 분담할 수 있다면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Johnson & Catalano, 1983). 또한 배우자나 형제, 다른 친척들의 정서적지지는 부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Sussman, 1976; Horowitz, 1985; Zarit et al, 1980, Stroller & Pugliesi, 1989에서 재인용).

그러나, Stroller와 Pugliesi(1989)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지지는 부담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Suito와 Pillemer(1993)는 형제가 스트레스의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송현애·이정덕(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시가 형제자매의 도구적 지원과 친구, 이웃의 정서적 지원은 부양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시가형제자매의 도구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양 스트레스의 인지정도는 낮아지고, 친구나 이웃의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양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가치관 변인

전통적으로 가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중요시 되었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노부모를 가족내에서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이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개

인주의의 팽배,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가치관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시부모와 며느리를 대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만족도와 부양부담도를 연구한 한은주(1993)에 따르면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양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며느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의식과 그에 따른 실천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부양부담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영역중에서 가족우선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부모부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김송애(1991)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부양의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들은 부양부담감에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영향변인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구학적 변인과 함께 가족관계변인, 사회적지지 변인, 그리고 가족가치관 변인을 중심으로 관련변인을 구성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양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가족변인 그리고 노부모 부양부담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독립변인

독립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주요 가족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변인은 김송애(1991), 서병숙(1988), 성규탁(1994), 허훈(1988), 김미향(198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전공자 3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정 보완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 변인의 문항수는 각각 1문항에서 4문항까지로, 5점 Likert척도(5점-매우 그렇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다문항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평균을 이용하였고,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났다.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종교, 소득, 직업, 출생순위, 동거여부, 부모님의 생존여부, 부모님의 연령, 부모님의 건강상태,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② 가족관계변인 :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생활만족도,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부모님과 대화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대화만족도 변인은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③ 사회적지지 변인 :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담을 느낄 때 배우자나 친척,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어느정도의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④ 가족가치관변인 :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의 내용으로는 남아선호도, 부양의식, 성인부모자녀관계, 가부장의식, 가족의 중요성 등의 변인을 이용하였다.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2문항부터 4문항까지로 구성하였다.

2) 노부모 부양부담감

부양부담감은 김명자·안선영·한정화(1996)의 연구를 기초로하여 문항을 선정, 수정하였으며, 사생활부족, 육체적 부담감, 긴장감, 심리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죄책감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은 각각 3문항씩으로 전체 부양부담감은 18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5점-매우 그렇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 부양부담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빈도	%	변 인		빈도	%
연령	39-40세	31	9.0	부인의 직업*	단순노무직	4	2.3
	41-45세	158	45.9		자영, 서비스직	45	26.2
	46-50세	125	36.3		사무직	16	9.3
교육수준	국졸이하	22	6.4		전문직	7	4.1
	중졸	59	17.2		주부	100	58.2
	고졸	182	52.9	부모님 생존여부	두분모두계심	102	29.7
	대졸이상	81	23.5		아버지만 계심	16	4.7
종교	기독교	71	20.7		어머니만 계심	226	65.7
	불교	102	29.7	아버님 건강상태**	건강함	41	33.9
	천주교	58	16.9		보통	59	48.8
	종교없음	112	32.7		불편함	21	17.4
수입	100만원 이하	33	9.6	어머님 건강상태**	건강함	84	25.7
	101-150만원	73	21.3		보통	166	50.8
	151-120만원	116	33.9		불편함	77	23.5
	201-300만원	63	18.4	부모님 수입**	없음	202	59.2
	301만원 이상	57	16.7		용돈자급자족	44	12.9
남편의 출생순위*	말이	74	43.0		생활비자급자족	66	19.4
	중간	77	44.8	여유있는수준	29	8.5	
	막내	21	12.2	아버님 연령**	65세 이하	2	1.7
가족형태	핵가족	280	81.4		66-70세	28	24.1
	확대가족	64	18.6		71-75세	34	29.3
지역	광주	238	69.2		76세 이상	52	44.8
	서울	106	30.8	어머님 연령**	65세 이하	12	3.9
남편의 직업*	단순노무직	10	5.9		66-70세	86	28.2
	자영, 서비스직	78	45.4		71-75세	85	27.9
	사무직	66	38.4		76세 이상	122	40.0
	전문직	18	10.5				

* 부부중 일방을 대상으로 함. ** 부모님의 생존여부와 무응답 등으로 빈도상 차이가 있음.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며 시부모님중 적어도 1분이 생존해 계시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년기는 그 범위를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연령에 따라 35-40세로 보는 경우도 있고(Sheehy, 1976), 40-60세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Havighurst, 1972), 윤진(1988)은 30대 후반에서 50대 말에 이르는 시기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전반까지를 중년기로 보되 40대를 중심

으로 임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가족 분량 50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172가족 344부를 최종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78.2%가 40대이고, 52.9%가 고졸이었다. 대상자의 67.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수입은 151-2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편의 출생순위는 중간이 44.8%로 가장 높았고, 핵가족형태가 81.4%였으며, 광주지역이 69.2%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으로는 자영, 서비스직, 그리고 사무직 순

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는 주부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은 어머니만 살아계시는 경우가 65.7%였고,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중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수입원은 59.2%가 없는 것으로, 부모님의 연령은 76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조사과정 및 분석방법

1997년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9월 한달동안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AS program을 이용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Duncan, Pearson's r,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비교

1)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는 <표 2>와 같다. 남편과 부인의 부양부담감은 중간점인 3점에 못미치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 집단간 차이

	남편		부인		paired t
	M	SD	M	SD	
사생활부족	2.49	0.84	2.54	1.05	-0.72
육체적부담감	2.29	0.74	2.34	0.93	-0.79
긴장감	2.07	0.83	2.09	0.91	-0.31
심리적부담감	2.17	0.88	2.29	0.94	-1.58
경제적부담감	2.27	0.84	2.29	0.88	-0.26
죄책감	3.45	0.83	3.17	0.80	3.87***
부양부담감	2.46	0.57	2.45	0.66	0.08

*** p<.001

이는 선행연구들(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4a; 이윤정, 1995)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사생활 부족, 육체적 부담감, 긴장감, 심리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등의 영역에서는 중간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나, 죄책감 영역에서는 남편, 부인 각각 3.45, 3.17로 중간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죄책감 영역에서는 부부간 유의한 차이(p<.001)를 보이고 있는데, 부인보다 남편이 부모부양에 따른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부인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의무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임춘희·정옥분, 1988)를 볼 때, 부양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부인에게 대리수행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부담감으로 볼 수 있다.

죄책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남편과 부인간에 유의한 집단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거 부양시에는 남편보다 부인의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동거 부양 비율이 낮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연구들(성미애, 1991; 이신숙·서병숙, 1993)에서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부양부담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편과 부인의 집단별 차이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죄책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사생활부족이 다른 영역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육체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부담감, 긴장감 순이었는데, 심리적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가 약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부양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양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긴장감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표 3〉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부부간 상관

	부부간 상관
사생활부족	.52***
육체적 부담감	.48***
긴장감	.46***
심리적 부담감	.45***
경제적 부담감	.37***
죄책감	.31***
부양부담감	.48***

*** p<.001

2)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부부간 상관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부부간 상관은 〈표 3〉과 같다.

남편과 부인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상관은 .4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각 영역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 부부간에 부담감의 정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생활부족의 영역은 다른 영역간 상관보다 높게 나타나 남편과 아내 모두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사생활부족을 유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련변인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차이

관련변인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양부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주로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남편은 자신의 출생순위에서, 부인은 연령, 남편의 출생순위, 부모님의 수입정도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은 출생순위가 막내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부양부담감을 나타냈고, 부인의 경우는 연령이 46-54세인 집단, 부모님이 생활비를 자급자족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부양부담감을, 남편의 출생순위가 막내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부담감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부양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양부담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송현

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4b; Lang & Brody, 1983), 만며느리의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4b; 이윤정, 1995; 한은주, 1993)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남편, 부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다만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는 동거시 부양부담감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거시 부인의 역할이나 부담이 남편보다는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최근 연구들(성미애, 1991; 이신숙·서병숙, 1993)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부양부담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거부양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노부모 세대의 자립정도도 증가하고 있어(김태현·전길양, 1997), 특별한 질병 등의 상황 이외에는 그 부담 정도가 유사해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 변인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은 가정생활만족도에서, 부인은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모와의 대화만족도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편은 가정생활에 만족해할수록 부양부담감이 낮게 나타났고, 부인도 가정생활과 부모와의 대화에 만족해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부담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은 부담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 변인에서는 남편은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차를 보였으나, 부인은 도구적 지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 노부모 부양부담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부인의 부양부담감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가치관 변인에서는 남편의 경우 남아선호도와 부양의식에서, 부인의 경우 남아선호도, 성인부모자녀관계, 가족의 중요성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은 남자를 선호하는 집단이 부담감을 높게 나타냈고, 부양에 대해 전통과 근대의 중간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감의 차이

		남 편					부 인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령	39-40세	5	2.33		A	26	2.51		AB	
		41-45세	49	2.47	0.13	A	109	2.36	3.18*	B	
		46-54세	118	2.46		A	37	2.67		A	
	남편의 출생순위	말이	74	2.53		A	72	2.56		A	
		중간	77	2.50	6.38**	A	77	2.50	10.78***	A	
		막내	21	2.06		B	22	1.88		B	
	부모님의 수입	없음	101	2.46		AB	101	2.41		B	
		용돈 자급자족	23	2.30		B	21	2.23	6.00***	B	
		생활비자급자족	31	2.65	1.91	A	33	2.85		A	
		여유있는 수준	13	2.35		AB	16	2.20		B	
동거여부	비동거	140	2.46			140	2.43				
	동거	32	2.44	.16		32	2.57	-1.06			
가족 관계 변인	가정생활 만족도	불만족	2	2.81		A	15	2.55		AB	
		보통	34	2.65	3.08*	A	50	2.70	6.19**	A	
		만족	136	2.40		A	107	2.32		B	
	부모님과 대화 만족도	불만족	31	2.49		A	29	2.66		A	
		보통	123	2.45	0.07	A	128	2.45	3.26*	AB	
		만족	18	2.47		A	15	2.13		B	
사회적 지지 변인	정서적 지지	낮다	29	2.26		B	14	2.14		B	
		보통	112	2.44	5.19**	B	129	2.47	1.80	AB	
		높다	31	2.72		A	29	2.52		A	
	도구적 지지	낮다	28	2.23		B	24	2.21		B	
		보통	115	2.47	3.91*	AB	116	2.44	3.81*	AB	
		높다	29	2.64		A	32	2.69		A	
가족 가치관 변인	남아선호	낮다	21	2.23		B	35	2.37		B	
		보통	109	2.41	7.39***	B	109	2.37	7.48***	B	
		높다	30	2.78		A	28	2.88		A	
	부양의식	근대적	27	2.18		B	34	2.30		A	
		중간	127	2.51	3.90*	A	95	2.46	1.36	A	
		전통적	18	2.47		AB	43	2.55		A	
	성인부모 자녀관계	근대적	26	2.27		B	28	2.41		B	
		중간	113	2.46	2.61	AB	113	2.38	4.37*	B	
		전통적	33	2.61		A	31	2.77		A	
	가족의 중요성	중요하지않다	29	2.64		A	26	2.76		A	
		보통이다	113	2.42	1.82	A	116	2.43	3.90*	B	
		중요하다	30	2.41		A	30	2.28		B	

* p<.05 ** p<.01 *** p<.001

우에는 남아를 선호하는 집단, 성인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선호나 성인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년부

〈표 5〉 남편/아내의 변인간 상관관계

	출생순위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의 대화만족도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남아선호	부양의식
가정생활만족	.07/ .10						
부모대화만족	.09/-07	.19/ .12					
정서적지지	-.07/-03	.02/ .11	.04/ .19*				
도구적지지	-.19/ .02	-.01/ .08	-.03/-03	.57***/.61***			
남아선호	-.09/-14	.09/-01	-.01/-01	.30***/.05	.28***/.23**		
부양의식	-.20/ .04	.17/ .10	-.06/ .06	.23**/.16*	.19/.21**	.47***/.39***	
가족의중요성	-.04/ .01	.19/.36***	.07/ .14	-.00/.11	-.07/.00	.13/-.07	.21**/.13

* p<.05 ** p<.01 *** p<.001

부는 부모부양책임감을 높게 인지하기 때문에 더 높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인의 경우는 실질적인 부양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년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앞의 분석결과 특히 유의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전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변인간 상관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d)를 산출한 결과, 남편의 경우는 1.97, 부인의 경우는 1.83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다음 〈표 6〉와 같다.

남편의 경우는 정서적지지가 부양부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beta=.27$), 출생순위($\beta=-.17$), 가정생활만족도($\beta=-.15$), 남아선호도($\beta=.17$) 등도 부양부담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 6〉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

	변인	b	β	R ²
남편	정서적지지	.07	.27***	.19***
	출생순위	-.14	-.17**	
	가정생활만족도	-.11	-.15*	
	남아선호	.12	.17*	
	가족의중요성	-.15	-.14	
부인	도구적지지	.07	.27***	.23***
	남편의출생순위	-.19	-.20***	
	남아선호	.12	.15**	
	부모와 대화만족도	-.04	-.16*	
	가족중요성	-.17	-.16*	

* p<.05 ** p<.01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약 19%의 설명력을 갖는다.

부인의 경우는 도구적지지가 부양부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beta=.27$), 남편의 출생순위($\beta=-.20$), 남아선호($\beta=.15$), 부모와 대화만족도($\beta=-.16$), 가족의 중요성($\beta=-.16$)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남편의 높은 출생순위, 강한 남아선호사상, 낮은 부모와의 대화만족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높은 부양부담도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23%이다.

이상에서 보듯,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한 영향 변인은 남편의 출생순위와 남아선호 사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변인에서는 남편의 경우는 정

서적 지지가, 부인의 경우는 도구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경우 실제로 부양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구적 지지보다는 심리적 지지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 부인의 경우는 실제 부양과정 중 신체적, 물질적, 시간적인 부분의 부담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보다는 도구적 지지가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의 정도는 부양부담감의 정도와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송현애·이정덕(1995)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로 부양부담을 높이 인지하는 경우 외부의 지지자원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노부모부양부담감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부양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부양부담감이 중간점에 못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가족유형이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가고 있어 실제로 성인 자녀가 부양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고, 전통적인 효의식의 존재로 인해 부모부양을 부담감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부양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남편과 부인은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 노부모 부양부담감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부인의 경우 도구적지지 변인이 부양부담감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양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부인인데서 나온 결과로 부인은 실제 부양과정중 신체적인 부분의 부담이나

물질적, 시간적 부담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보다는 도구적 지지가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에게 실제적인 도구적 지지를 실시하여 궁극적으로는 부인의 부양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변인을 보면, 남편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부인은 부모와의 대화만족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 부양자인 부인은 실제로 부모와의 직, 간접적인 접촉이 많기 때문에 대화만족도와 부담감과의 관련성이 높지만, 남편의 경우는 부인을 통한 간접 부양의 경험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부인과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생활만족도가 노부모 부양부담감에 더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일차 부양자인 부인을 대상으로 하여 바람직한 노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 변인을 보면, 남아선호 사상이나 부양의식, 성인부모 자녀관계 등에서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년 부부일 경우 부양부담감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 의식이 부모부양에 대한 긍정적 수용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영향을 발휘하므로 이러한 전통적 의식의 적절한 사회적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전통적 의식을 고취하여 부양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양정책 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부모 부양부담감은 가정생활만족도, 가족의 중요성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부양부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해체현상과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활발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정의 안정이 나아가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양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원만한 노부모-성인자녀관

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가족적, 사회적, 정책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1996.
- 2) 김명자·안선영·한정화,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96, 97-110.
- 3) 김미향,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1988,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송애,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1991,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윤정,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1993,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6) 김태현·전길양, 한국의 노인가족부양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 연구, 2(3), 1997, 89-124.
- 7) 민무숙,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1995, 74-90.
- 8) 서병숙,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1988,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신규탁, 현대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한국노년학, 14, 1994, 50-68.
- 10) 성미애,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 부담도, 1991,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송현애·이정덕,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995, 115-123.
- 12) 신일진·김태현,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991, 27-44.
- 13) 신화용, 1980년이후의 노년기가족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96, 35-49.
- 14) 옥선화·이형실·이춘희,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 부양자 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2), 1994, 62-77.
- 15) 윤성혜,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1990,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6) 이신숙,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1994,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이신숙·서병숙, 기혼여성의 노모 부양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993, 67-81.
- 18) 이신숙·서병숙, 노모와 동,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a, 129-139.
- 19) 이신숙·서병숙,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994b, 57-71.
- 20) 이영자·김태현,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2(1), 1992, 1-18.
- 21) 이윤정,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따른 부담감, 1995, 숙대 석사학위논문.
- 22) 이진경, 시부모 부양태도에 관한 연구, 1990,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23) 윤진,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8.
- 24) 임춘희·정옥분,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 식유형, 대한가정학회지, 26(1), 1988, 163-177.
- 25) 장선주,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1990,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26) 조경자·한동희·조은희,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1996, 261-273.
- 27) 조병은·신화용,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1992, 83-98.
- 28) 최정혜,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1992,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29)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6.
-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1994.
- 31) 한은주,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1993,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32) 한은주 · 최배영,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5(2), 1997, 374-383.
- 33) 허훈, 한국대학생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회*, 8, 1988, 89-106.
- 34) Brody, E.M.,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1985, 19-29
- 35) Cicirelli, V., Social services and kin network : views of the elderly, *Journal of Home Economics*, 1980(3), 34-37.
- 36) Cicirelli, V.,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1983, 815-824.
- 37) Dwyer, J. W., Lee, G. R. & Jankowski, T. B., Reciprocity, elder satisfaction and caregiver stress : the exchange of aid in the family caregiving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1994, 35-43.
- 38) Havighurst, R. L.,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David Mckay, 1972.
- 39) Lang, A. M. & Brody, E. M.,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93-202.
- 40) Lawton, M. P., Kleban, M. H., Moss, M., Rovine, M. & Glicksman, A., Measuring caregiving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1989, 44(3), 61-71.
- 41) Miller, B., McFall, S., Montgomery, A., The Impact of Elder Health, Caregiver, Involvement, and Global Stress on Two Dimensions of Caregiver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46(1), 1991, 9-19.
- 42) Scharlach, A. E., Caregiving and employment :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les?, *The Gerontologist*, 34(3), 1994, 378-385.
- 43) Sheehy, G., *Passage,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Dutton, 1976.
- 44) Soldo, B. J. & Myllyluoma, J., Caregivers who live with depen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1983, 605-611.
- 45) Stroller, E. P. & Pugliesi, K. L., Other roles of caregivers :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6), 1989, 231-238.
- 46) Suito, J. J. & Pillemer, k.,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1988, 1037-1047.
- 47) Suito, J. J. & Pillemer, k., Support and interpersonal stress in the social networks of married daughters caring for par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Gerontology*, 48(1), 1993, 1-8.